

저자 (Authors)	周炘美 Joo, Kyeong-mi
출처 (Source)	신라문화 43 , 2014.2, 173-205 (33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3 , 2014.2, 173-205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8120
APA Style	周炘美 (2014).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형성과 변천. 신라문화, 43, 173-20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형성과 변천

周 炘 美*

<目 次>	
I. 머리 말	III.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조형적 변천과 삼국통일
II.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형성과 王權	(1) 舍利莊嚴具의 新形式 창안과 유행
(1) 신라 舍利初傳 기록의 정치적 의미	(2) 제작기법의 전통과 혁신
(2) 신라 왕실의 전륜성왕 사상과 사리신앙	IV. 맺 음 말

[국문초록] 불교 공인 이후 신라는 왕실의 적극적 후원 아래에서 중국 梁으로부터 6세기 중반경 불사리신앙과 장엄방식을 받아들여 꾸준히 발전시켰다. 신라 왕실이 초기부터 사리신앙과 장엄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리신앙과 장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신라 왕실에 의해 도입된 사리신앙과 장엄방식은 순수하게 불교적인 성격보다는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여 세속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종교예술분야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사리신앙의 정치적 성격과 사리기의 조형적 성격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분석해보았다. 신라의 사리장엄은 사리초전시기인 진흥왕 연간부터 동아시아적 아육왕 전승을 바탕으로 발전한 신라 왕실의 전륜성왕 사상 구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도입되었다. 이후 신라 왕실의 사리신앙은 순수하게 불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전의 성격이 강조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삼국통일 이전과 그 직후에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사회, 문화의 변화와 함께 신라의 사리장엄방식도 좀 더 조형 양식이 강조된 양상으로 발전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사리장엄방식은 신라 고유의 공예 제작기법을 바탕으로, 백제, 고구려, 중국 唐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융합하여 독자적인 형식과 조형양식을 구현해냈다. 삼국의 통일은 신라 사리장엄방식이 정치적 선전의 성격에서 보다 불교미술적 성격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된다.

* 서울대학교 강사

[영문초록] After the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Buddhist relic cult transmitted to Silla royal family from Liang dynasty of Southern China during the mid sixth century.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Buddhist relic cult in Silla were deeply related to the royal patronage of Silla. Silla Kings and royal family enthusiastically patronized and developed many Buddhist relic cults especially related to the Buddha's bodily relics for the purpose of their political propaganda. Such Buddhist relic cult was not a pure religious Buddhist worship, but rather ambiguous fusion of sacred and profane characters embedded i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s of the time.

Here I analyzed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Buddhist relic cult in Silla with the two major influential factors. One i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 of the Buddhist relic cult and the other is the materi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 of the Buddhist reliquaries. The first introduction of Buddha's relic from China to Silla was taken under the reign of King Jinheung for his political propaganda. Thi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legendary Aśokan tradition of East Asia an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Buddhist Kingship of Chakravartin for the King of Silla. The successors of King Jinheung inherited such political meanings of Buddhist relic cult with their own styles, and especially those sovereigns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emphasized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Buddhist relic cult.

Since Silla accomplished the political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relic cult changed into more artistic and religious material culture rather than a mere political propaganda for the royal families of Silla. Buddhist reliquaries of Unified Silla period developed the original artistic styles of their own based on the traditional metal craft techniques comprehensively blended with newly acquired cultures from Baekje, Goguryo and Tang China.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as an important transition point of Buddhist relic cult in Silla from political propaganda for the royals to Buddhist religious art for the Buddh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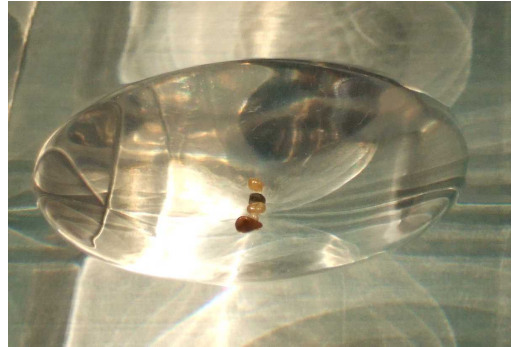
[주제어] 사리장엄구(Buddhist Reliquary), 아육왕 전승(Aśokan tradition), 진흥왕(King Jinheung), 불교적 왕권(Buddhist Kingship), 삼국통일(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감은사탑 사리장엄구(Buddhist reliquary of Gameunsa Pagoda)

I. 머리말

舍利莊嚴은 불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스러운 부처의 상징물로서 존중되어 온舍利에 대한 신앙과 함께 발달한 독특한 불교적 조형물의 집합체로서, 불교미술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舍利를 공양하기 위해서 갖추어 꾸미는 모든 조



도 1. 골아형舍利. 미국 캘리포니아 廬山寺 소장. 2013년 사리친견회.



도 2. 보주형舍利. 경주 황룡사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06년 특별전 전시.

형물과 관련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舍利莊嚴에는 사리를 직접 안치하는 舍利器에서부터 시작하여 舍利器가 안치되는 공간인 塔이나 殿閣, 그리고 사리에게 바쳐진 각종 供養具 및 儀禮用品들과 의례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¹⁾ 불교에서의 사리신앙은 석가모니 부처가 入滅한 후 남긴 시신을 火葬하고 남은 聖物, 즉 遺骸의 일부를 숭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사리장엄은 탑을 비롯한 불교미술의 기원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부처의 시신에서 나왔다는 사리는 뼈나 이빨과 같은 형태의 骨牙形 舍利와 빛을 내는 구슬 모양의 寶珠形舍利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도 1, 2).²⁾ 석가의 입멸을 계기로 본격화된 불교의 사리신앙은 사실 불교 이전부터 내려오는 聖人, 혹은 위인의 遺骸 공양의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미 석가모니 생전부터 그의 제자들의 사리공양 및 建塔儀禮가 이루어졌다.³⁾

1) 莊嚴이란 산스크리트어의 ‘뷰하(vyūha)’, 혹은 ‘알람카라(alaṃkāra)’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嚴飾布例’ 혹은 ‘화려하고 엄숙하게 장식하다’라는 의미이다. 장엄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경미, 『菩薩의 瓔珞莊嚴과 造像上의 표현』, 『東洋古典研究』 6, 1996a, pp. 298-300 참조.

2) 舍利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인 ‘사리라(sarīra)’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원래 인도에서는 ‘몸이나 뼈, 遺骨, 屍身, 遺骸’ 등을 포괄한다. 望月信亨, 『佛教大辭典』 3,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3, pp. 2185-2188. “佛舍利”라는 말은 廣義로는 “불교에서의 사리”를 뜻하며, 狹義로는 “부처의 사리”를 뜻한다. 불교에서 사리로 숭앙되는 다양한 聖物의 종류와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a, pp. 14-21; John S. Strong, *Relics of the Buddh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p. 1-97 참조.

3) 주경미, 위의 책, pp. 21~22.

기원후 6세기, 즉 석가의 입멸 이후 1200년이 지나서 사리신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신라에서는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치면서 석가 입멸 직후와는 이미 상당히 달라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사리신앙과 장엄방식을 받아들였다. 신라에서 처음 받아들인 사리신앙은 중국 南朝의 梁나라를 통해서 전래된 것으로, 당시 阿育王 傳承과 관련하여 眞身舍利信仰을 발달시켰던 梁 武帝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이후 신라의 사리장엄은 중국이나 인도의 영향을 꾸준히 받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신라화된 조형양식을 구현한 독특한 조형예술 장르로 발전하였다.⁴⁾

사리장엄은 다른 순수한 불교미술 장르와는 달리 舍利라는 종교적 聖物에 대한 발원자의 무한한 욕망과 물질적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형성된 종교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 조형성의 이해에서는 聖俗의 모순과 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성격과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⁵⁾ 사리장엄은 언제 어디에서나 당시의 현지 문화의 세속화된 양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독특하면서도 특수한 종교예술 장르로 발달했으며, 신라의 사리장엄도 역시 신라의 문화적 양식을 가장 잘 반영한 조형예술 장르로 발전했다.

현존하는 수많은 신라의 사리장엄 관련 유물은 탐마다, 시대마다 조형적 특징 및 세트 구성 방식이 다르며, 일부 사리기 중에는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유일한 조형물로서 비슷한 實例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사리장엄의 연구에서는 불교조각이나 佛畫, 梵鐘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불교미술 장르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양식 및 도상의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리장엄의 特殊性 및 一回性이라는 조형적 특징은 이들이 순수한 종교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리장엄의 조형적 特殊성과 一回성은 부처와 同格으로 숭앙되는 특수한 聖物인 舍利를 공양하기 위해서 매번 의례 때마다 독특하게 행해졌던 종교·문화적 복합 조형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조형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리장엄에서는 多重의 舍利器 구성과 사리 매납을 위한 造塔이라는 조형요소가 보편적으로 구현된다. 이때, 多重舍利器 중에서 사리를 직접 담는 가장 안쪽의 容器는 사리장엄이 행해지던 당시의 관점

4) 신라,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사리장엄은 독특한 조형성으로 인하여 여러 선학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신라 사리장엄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 글 참조. 金禧庚, 『韓國塔婆의 舍利裝置小考』, 『考古美術』 106-107, 1970; 김희경, 『사리기』, 대원사, 1989;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강우방,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1993;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5) 사리의 신성성과 물질성이 가지는 모순적 관계에 대해서는 주경미,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 7, 2008b, pp. 38-63 참조.

에서 가장 비싸고 훌륭한 재질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리공양의례에서 사용되거나 봉헌된 각종 공양품들은 대부분 탑 안에 함께 매납되어 사리장엄의 일부가 된다. 탑에서 발견되는 사리장엄 관련 유물들은 매납된 시기를 기점으로 탑 속에 묻혀서 사라진 타임캡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한 탑에서 발견된 유물이라도 탑 창건기라는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매납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리와 사리장엄구의 반출과 재매납을 반복하여 여러 시대의 유물이 혼재된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재매납시에는 옛 유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 중수한 유물을 매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 탑의 사리장엄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성스러운 사리와는 달리, 사리장엄구는 물질적 속성을 가진 조형물이므로, 만들어진 지역이나 시대 문화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불교의 사상적 변화는 사리신앙과 장엄 자체의 쇠퇴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장엄은 언제나 사리, 즉 부처와 동일한 성스러운 존재 자체에게 바치는 직접적인 공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리공양과 장엄의 후원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財寶와 노력을 들여서 행했다. 그 결과 사리장엄방식은 어느 시대에도 각각 당시 최고의 문화 양식을 반영하여 조형화되었으며,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본고에서는 사리장엄이라는 조형예술 장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고찰하겠다.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는 발원자나 후원자의 계층 및 성향, 새로운 문화 및 사상의 전래 및 사회 변동 등과 같은 다양한 비불교적 요소가 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사리장엄구의 구성방식에 대한 통일된 구체적 규범이 없기 때문에,⁶⁾ 사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릇과 장엄구들의 형식 및 재질, 구성 등은 당시 불교 및 비불교적 문화의 영향을 골고루 받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형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사리신앙의 정치적 성격과 사리기의 조형적 성격이라는 두 가지 비불교적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겠다.⁷⁾

6) 사리장엄의 주요 소의경전이라고 알려진 각종 涅槃經에 기록된 석가의 葬送儀禮와 莊嚴具는 경전마다 종류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각종 열반경의 舍利莊嚴方式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책, 2003a, pp. 22-26 참조. 한편 造塔方式이나 인조사리의 제작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여러 경전들에 나타나는 특수한 사리장엄방식의 구현은 특정 경전의 유포와 관련된 시기 및 지역의 불교문화적 양상과 관계된 것으로서,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규범, 혹은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II.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형성과 王權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入滅 후, 석가의 사리를 공양하고 사리탑을 처음 세운 것은 八國의 國王으로 전한다. 八國分舍利, 혹은 根本八塔의 초기 전승은 佛舍利供養과 莊嚴이 이미 석존 입멸직후부터 王權의 후원과 보호 아래에서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이후 帝王에 의한 진신사리신앙이 본격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기원전 3세기경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제국의 아쇼카왕(King Aśoka)때부터이다. 동아시아에서 阿育王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쇼카왕의 행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가의 진신사리를 모신 근본팔탑 중 일곱 곳에서 사리를 꺼내어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의 각지에 사리를 나누어 보내어 팔만사천개의 탑을 한낱한시에 건립했다는 八萬四千塔 건립의 고사이다. 아쇼카왕의 팔만사천탑 고사는 순수한 불교 의례였다기보다는 제국의 통치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진 사리신앙과 장엄 방식에 해당한다.

혼란한 南北朝時代에 불교를 받아들인 동아시아의 제왕들은 아육왕 전승을 모방한 轉輪聖王 사상을 구현하고자 제각기 진신사리신앙과 장엄에 큰 힘을 쏟았다.⁸⁾ 동아시아의 아육왕 전승과 전륜성왕 사상의 구현은 진신사리신앙 및 장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으며, 신라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에는 왕실의 절대적 후원이 중요했으며, 이것은 왕권 강화와 선전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신라의 舍利初傳 기록 및 신라 왕실 사리신앙에 보이는 정치적 의미와 王權과의 관계를 고찰하겠다.

(1) 신라 舍利初傳 기록의 정치적 의미

동아시아에서 아육왕 전승을 모방하여 아육왕탑을 발굴하고 부처의 진신사리를

7) 이외에 신라 사리장엄방식 변천의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新譯經典의 전래와 불교사상 및 종파의 변화 등 불교적 요인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별고를 통해서 고찰할 예정이다.

8) 아쇼카왕의 불교 개종과 팔만사천탑 건립의 정치적 의의 및 동아시아로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John S. Strong, *The Legend of King Aśok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및 周旻美, 「中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 - 易姓革命의 선전물로서의 眞身舍利供養」, 『東洋學』 33, 2003b; 上同, 「고대 국왕의 진신사리공양과 정치적 함의」, 『인문사회과학연구』 10-2, 2009c; 上同,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아」, 『인문논총』 67, 2012.

찾아내어 공양하고 새로운 탑과 사찰을 짓기 시작하는 것은 南北朝時代부터이다. 崇佛皇帝로 널리 알려진 南朝의 梁武帝는 동아시아의 제왕 중에서는 가장 먼저 아육왕 전승에 관심을 갖고 아육왕탑의 발굴과 증수에 힘썼다.⁹⁾ 梁武帝가 진신사리공양과 建塔에 본격적으로 힘썼던 것은 그의 치세 후반기로서, 6세기 전반인 520-530년대 경이다.¹⁰⁾

당시 신라는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왕권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정치를 본격화한 시기였다. 법흥왕은 재위 14년인 527년 이차돈의 순교와 함께 불교를 공인했는데, 이것은 신라의 불교 전래후 100여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다.¹¹⁾ 법흥왕의 불교 공인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당시 신라와 梁의 교류 관계이다. 법흥왕은 521년 梁에 사신을 보냈는데,¹²⁾ 당시 梁에서는 武帝가 519년 보살계를 받고 승단 통제와 장악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¹³⁾ 武帝는 520년경부터는 莊嚴寺에 法輪 8좌를 세웠으며, 아버지를 위해서 大愛敬寺를 건립하고 521년부터는 同泰寺를 건립하기 시작했다.¹⁴⁾ 연대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梁武帝가 會稽 鄞縣의 阿育王塔에 있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찾아내어 공양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즈음부터이다.¹⁵⁾ 그러므로 521년에 梁나라를 방문한 신라의 사신들은 梁武帝의 본격적인 승불활동과 승단 장악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서 왕실에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에 佛舍利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眞興王 10년(549)으로, 불교 공인 후 22년이나 지나서였다. 신라의 舍利初傳 기사는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¹⁶⁾ 기록에 의하면 당시 梁에서는 사신 沈湖

9) 주경미, 앞의 논문, 2012 참조.

10) 梁武帝年間の 불교 정책에 대해서는 蘇鉉淑, 「梁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 2, 2009. pp. 125~165.

11) 신라의 불교 전래와 공인에 대해서는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pp. 127~208.

12) “(法興王) 八年 遣使於梁 貢方物.”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條.

13) 蘇鉉淑, 앞의 논문, 2009, p. 138.

14) 이 시기 梁武帝의 행적에 대해서는 諷訪義純, 『中國南朝佛教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1997, pp. 49~58 참조.

15) 梁武帝의 會稽 鄞縣 阿育王塔 공양연대는 521년, 536년, 543년 등 다양한 설이 있는데, 필자는 『集神州三寶感通錄』의 아육왕사 증수연대가 522년인 점을 고려하여 521년으로 추정한다. 會稽 鄞縣 아육왕사는 현재 중국 浙江省 寧波 阿育王寺로서, 당시의 아육왕탑은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형사리장엄구였다. 이 곳에 대형 목탑을 처음으로 세운 것은 梁武帝이다. 寧波 아육왕사 및 아육왕탑에 대해서는 周旻美,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研究」, 『中國史研究』 60, 2009b, pp. 72~80 참조.

와 유학승 覺德을 보내어 사리 몇 립을 보냈는데, 佛舍利를 맞이할 때에 왕은 백 관으로 하여금 흥륜사 앞 길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공양했다고 한다. 이 기록은 삼국시대의 사리 전래 기록 중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초기 신라 왕실의 사리신앙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사리를 맞이해온 太淸 3년은 梁 武帝 末年으로서, 그 해 5월 梁 武帝가 죽고 閻文帝가 즉위한 해이다.¹⁷⁾ 그러므로 신라에 사리가 전래된 것은 548년 일어난 侯景의 亂으로 인하여 武帝가 죽고 신황제가 즉위하던 梁의 혼란기에 해당하므로,¹⁸⁾ 이 사리가 梁 황실에서 직접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리가 전래되었을 때에 진흥왕이 직접 나아가서 사리를 맞이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아유왕 전승 및 전륜성왕 사상과 관련된 진신사리의 전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신라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사리 전래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행했던 행사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¹⁹⁾

梁 武帝는 재위기간 동안에 동남아시아의 扶南國에서 불상과 佛髮을 가져왔으며, 보리국에서는 眞舍利와 탐 그림을 사신을 보내서 가져왔다. 그가 扶南國에서 佛髮을 가져온 시기는 扶南國에서 부당한 후계자에 의해 왕위가 교체된 직후였다. 즉 梁 武帝는 扶南國 왕실의 聖物을 소유하기에 부적절한 후계자로부터 舍利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이 전륜성왕으로서의 정당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냈던 것이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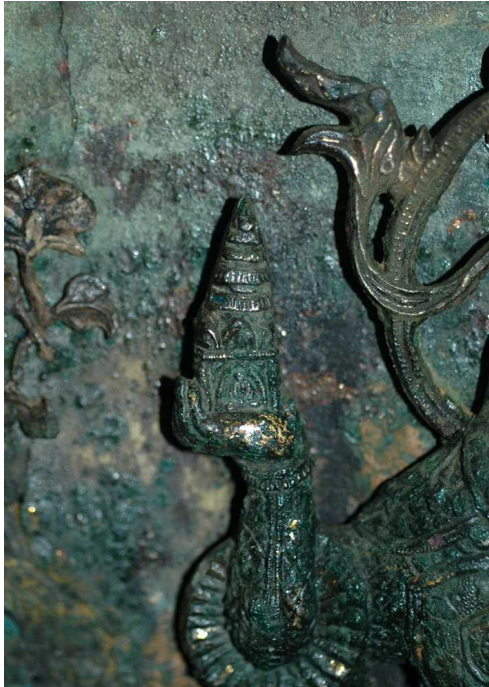
-
- 16) “國史云 眞興王 太淸三年己巳 梁使沈湖 送舍利若干立.” 『三國遺事』 卷3 「前後所藏舍利」條. “十年春 梁遣使與入學僧覺德 送佛舍利 王使百官奉迎輿輪寺前路.”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條.
 - 17) “太淸三年五月丙辰 高祖崩 辛巳皇帝位.” 『梁書』 卷4, 本紀 第4, 閻文帝條.
 - 18) 侯景의 일생과 亂에 대해서는 竹田龍兒, 「侯景の亂についての一考察」, 『史學』 29-3, 1956, pp. 262-287; Scott Pearce, “Who, and What, was Hou Jing?” *Early Medieval China* 6, 2000, pp. 49~73.
 - 19) 진흥왕 연간 사리신앙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선행 연구는 판카즈 모한의 다음 글 참조. 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아소카 상징의 수용과 의의」, 『한국사상사학』 23, 2003, pp. 195~222; 上同, 「신라 중고기(AD. 527-654년)의舍利신앙과 왕권의 정당화」, 『2004 금강대학교 국제불교학술회의』, 금강대학교, 2004a, pp. 181~198; 上同,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 간의 관계」, 『불교학연구』 9, 2004b, pp. 135~152.
 - 20) 梁 武帝의 동남아 사리 전래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논문, 2012, pp. 26~32 참조. 덕이 있는 제왕에게 진신사리가 나타나고 그 제왕은 사리를 수호한다는 개념은 고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역사상 이러한 사리와 왕권과의 관계가 특히 긴밀하게 발달하여 진신사리가 왕권을 상징하는 정치적 상징물로서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이후 스리랑카의 왕실에서 왕권의 상징물로서 佛齒舍利를 수호하면서부터이다. 스리랑카

마찬가지로 신라에 사리가 처음 전래된 시기가 당시 동아시아에서 전륜성왕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웠던 梁 武帝의 비참한 말년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당시 梁으로부터의 사리 전래 기록은 단순한 불교적 聖物의 전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라 왕실, 특히 당시 왕인 진흥왕이 梁 武帝의 敗亡과 함께 舍利, 즉 부처로부터 새로이 선택받은 전륜성왕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²¹⁾ 梁 武帝의 패망시기에 진흥왕은 이러한 사리전래 사건을 통하여 신라 왕실이 진신사리, 즉 부처의 새로운 선택을 받은 정당한 정치적 권력임을 천명하고 불교적 전륜성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 왕실에서는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절대 왕권을 수립하였다.²²⁾

진흥왕 연간에 梁에서 전래해온 부처의 사리는 흥륜사에 모셨다고 하므로, 당시 흥륜사에는 사리장엄구를 매납한 탑이 세워졌을 것이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매년 2월 초, 즉 석가의 涅槃日을 기념하며 흥륜사의 전각과 탑을 도는 탑돌이 의례를 행했다고 하므로,²³⁾ 진흥왕이 창건한 흥륜사의 탑은 지속적으로 신라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진흥왕 연간에 창건된 흥륜사 탑의 형태나 사리장엄방식에 대한 물질문화적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구체적 양상은 확인할 수 없다.²⁴⁾

의 사리와 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경미, 「스리랑카의 佛齒精舍와 동아시아의 求法僧」, 『역사와 경계』 69, 2008b 참조.

- 21) 한편 『三國史記』에서는 이 해 10월에 백제가 梁에 사신을 보냈는데, 侯景의 亂을 모르고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신라에 佛舍利가 전래되었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제4, 聖王 27년조. 이러한 기록은 신라를 우위에 두고 서술한 正史 기록자의 불교적 史觀을 반영한 전승으로 생각된다.
- 22) 진흥왕 이후의 신라 왕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리신앙 등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왕족의 신성화를 이끌었음에 대해서는 판카즈 모한, 앞의 논문(2004a) 및 Pankaj Mohan, "Relic Worship and the Legitimization of Monarchical Power in Seventh Century Silla." *Korea Observer* 36-1, 2005. pp. 87~110.
- 23) 흥륜사의 탑돌이는 적어도 8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흥륜사의 탑돌이 의례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권5, 感通 제7, 金現感虎條 참조.
- 24) 진흥왕 연간의 흥륜사는 현재의 경주 천경림 흥륜사 위치가 아니라 경주공업고등학교 자리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경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된 “王”자와 “興”자가 새겨진 기와편의 명문이 흥륜사의 원래 명칭인 “大王興輪寺”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工業高等學校內 遺構 收拾調査』, 국립경주박물관, 2011, p. 70. 그러나 寺址 전역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탑과 전각의 전모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현재 경주의 천경림 흥륜사는 발굴 조사에 의해 신라시대의



도 3. 서역식 보탑. 7세기 후반.
경주 감은사지 서탑 출토 外函의 세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구한말의 許薰(1836-1907)이 讚한 「金堂塔記」에 의하면, 梁 太淸己巳年에 심호가 신라로 불사리 1函을 가져와서, 그 사리를 진평왕 즉위 4년(582)에 각 사찰로 나누어 봉안했는데, 이때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봉안된 것이 1200여과였다고 전한다.²⁵⁾ 그러나 梁에서 신라로 가져온 사리는 몇 립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있고,²⁶⁾ 중국의 隋 文帝도 탐한 곳에 사리 한 과씩 봉안해서 3-4년간 전국에 백여 기의 탑을 세웠을 뿐이다. 또한 577년의 백제 왕흥사지 석탑에서는 사리 2매가 3매로 늘어났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639년의 백제 미륵사지에서는 사리병 안에 봉안되었던 사리가 1과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梁에서 전래된 사리가 1200여과에 달한다는 「金堂塔記」의 기록은 상당히 과장된 후대의 기록에 불과하다.

홍륜사 탑 창건기의 사리장엄방식은 아마도 梁 武帝가 행했던 金陵 長干寺와 會稽 鄞縣 阿育王寺의 사리장엄방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梁 武帝가 가장 먼저 진신사리공양을 올렸던 會稽 鄞縣 아육왕사의 아육왕탑은 西域式 寶塔 형태를 한 塔形舍利莊嚴具였다. 梁 武帝가 538년 새로 건립한 長干寺의 雙塔에는 각각 金罍-玉罍-七寶塔-石函의 4중 용기로 구성된 莊嚴具 세트를 마련하여 舍利와 佛爪髮을 봉안했는데,²⁷⁾ 이는 금과 옥으로 만든 단지와 칠보탑이라고 하는 탑형사리장엄구를 겹쳐서 다중으로 구성한 것이다. 탑형사리장엄구 형식의 제작, 多重容

영묘사지로 추정된다. 위의 책, pp. 15~16.

25) “達城郡八公山桐華寺金堂塔奉安世尊舍利…舫山居士許薰撰 金堂塔記畧曰 本寺奉安釋迦世尊舍利 乃蕭梁太淸己巳 遣使沈瑚於新羅 送佛舍利一函 時則眞興王卽位之十年 王謂有緣 剃髮爲僧 自號法雲 其孫眞平王卽位之四年壬寅 分安舍利於諸刹 而獨本寺所安者 一千二百餘顆 仍爲福國之願堂…”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 新文館, 1918, p. 1017.

26) “送舍利若干立” 『三國遺事』 卷3 「前後所藏舍利」條.

27) 『梁書』 卷54 「列傳」 扶南國條.

器的 사용, 그리고 쌍탑의 건립 등과 같은 梁武帝 연간의 사리장엄방식은 진흥왕 연간에 신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會稽 鄞縣 아육왕탑과 유사한 계통의 西域式 寶塔 형태는 신라 불교미술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7세기 후반 신라 왕실에서 발원한 감은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중 外函에 장엄된 사천왕은 방형단층에 높은 상륜부를 가진 서역식 보탑을 들고 있어서(도 3), 이러한 형식의 소탑, 혹은 탑형사리장엄구가 신라에 비교적 일찍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실에서는 梁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방형단층의 西域式 寶塔 모양의 탑형사리장엄구를 아주 일찍부터 인식하여 왕실 특유의 진신사리 봉안용 특수 사리장엄구형식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2) 신라 왕실의 전문성왕 사상과 사리신앙

기록상에 보이는 신라의 두 번째 사리 전래는 眞興王 37년(576)년의 일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당시 수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安弘法師가 胡僧과 함께 오면서 『능가경』과 『승만경』, 그리고 부처의 사리를 가져왔다고 한다.²⁸⁾ 이 기록의 실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安弘의 생존 및 유학연대가 기록마다 차이가 있으며, 안흥이 돌아왔다고 하는 576년에는 아직 수나라가 건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흥은 安含과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진평왕 원년(579)에 태어나 선덕왕 9년(640)에 입적했다고 한다.²⁹⁾ 『海東高僧傳』에 인용된 崔致遠의 <義相傳>에 따르면, 안함의 유학 연대는 진평왕 42년인 625년에 해당한다.³⁰⁾ 그러므로 『三國史記』의 진흥왕 37년조에 기록된 佛舍利 전래 기록에 나오는 인물과 안함은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각 별개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안함과 안흥의 동일인 여부를 떠나서, 사리가 신라에 또다시 전래된 576년은 동아시아 정치사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깊은 해이므로, 이 해에 사리가 다시 전래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신라에서 576년은 진흥왕 말년이자 진지왕이 즉위한 해이다. 또한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는

28) “安弘法師入隋求法與胡僧毗摩羅等二僧廻上稜伽勝鬘經及佛舍利.”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條.

29) 안흥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辛鍾遠, 앞의 책, pp. 232~249 참조. 『海東高僧傳』에서는 안흥과 안함이 동일인이지만, 안흥이 두 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海東高僧傳』 卷2, 釋安含條.

30) “崔致遠所撰義相傳云 相眞平建福四十二年受生 是年東方聖人安弘法師與西國二三藏 漢僧二人至自唐…” 『海東高僧傳』 卷2, 釋安含條

源花, 즉 화랑도가 처음 세워진 해이기도 하다.

안흥의 사리 전래 기록에서는 유학했던 곳이 隋로 나오지만, 아직 수나라가 건국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리는 南朝의 陳이거나 北朝의 北周, 혹은 北齊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당시 宣帝가 재위하던 南朝의 陳에서는 창건기부터 독특한 사리신앙이 발전했다. 陳을 건국한 武帝는 梁 武帝에 비견되는 사리신앙을 발전시킨 황제로, 557년 호탄에서 전래된 佛牙, 즉 골아형사리를 공양하고 佛牙供養會를 크게 열었다.³¹⁾ 이 佛牙는 5세기말 서역에서 돌아온 구법승 法獻이 가져온 것으로, 중국 황실에서 공양된 첫 번째 골아형사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陳 황실 특유의 골아형사리신앙과 비교적 안정된 宣帝의 통치 상황으로 볼 때, 당시 陳에서 신라로 사리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³²⁾

반면, 이 시기의 北朝는 北周의 武帝가 574년 廢佛을 단행하고 575년 北齊를 침략하여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³³⁾ 北齊는 안흥이 신라로 사리를 전래해온 이듬해인 577년 결국 北周 武帝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러한 중국 北朝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안흥이라는 승려가 사리를 또다시 전래해왔다는 기사는 北周의 廢佛 및 北齊의 멸망이라는 北朝의 정치적 변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된다. 北齊의 창건자인 文宣帝는 역시 동시대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전륜성왕 사상을 받아들여서 북향단상을 개작하고 佛事를 후원했던 불교적 제왕이었다.³⁴⁾ 北齊 왕실의 전륜성왕 사상은 文宣帝 이후 왕실의 내분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하여 폐불을 단행한 北周의 침략과 함께 종말을 맞는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신라로 또다시 사리가 전래되었음을 기록한 것은 당시 신라 왕실이 北齊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왕실의 위상 고양과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행했던 정치적 불교의례를 재차 행했음을 알려준다.³⁵⁾ 즉 당시의 사리전래는 신라 왕실에서 추구하던

31) 塚本善隆, 「陳の革命と佛牙」, 『東方學報』 19, 1950, pp. 1~10.

32) 569년부터 582년까지 재위한 陳 宣帝는 불교를 숭앙하여 太皇寺의 7층목탑 건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佛事를 행했으며, 573년에는 北齊 토벌을 명하여 회수 이남의 땅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宣帝 연간의 치세 및 佛事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陳書』 卷5, 宣帝紀; 『南史』 卷10, 「陳紀」; 가와카쓰 요시오(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 - 위진남북조』, 혜안, 2004, pp. 286~297; 諏訪義純, 앞의 책, 1997, pp. 254~268.

33) 北周 武帝의 廢佛에 대해서는 張美蘭, 「北朝廢佛에 관한 小考」, 『韓國佛敎學』 33, 2003, pp. 327~352 참조.

34) 北齊 文宣帝의 轉輪聖王 사상에 대해서는 蘇鉉淑, 「北響堂山石窟 北洞의 轉輪聖王 상징」, 『미술사학연구』 255, 2007, pp. 167~196.

35) 이와 비교하여, 신라의 사리 전래보다 1년 늦은 577년 백제의 위덕왕이 부여 왕흥사에 왕실에서 발원한 목탑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공양했던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위덕왕의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치적 불교의례였던 것이다.

이상 신라의 사리 전래 기록들은 6세기경 신라 왕실의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에 있어서 진신사리신앙을 통한 불교의 아육왕 전승 및 전륜성왕 사상 구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다. 특히 진흥왕은 梁武帝 연간에 본격화된 아육왕 전승의 동아시아적 구현을 본받으면서도 동시에 신라화된 전륜성왕 사상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그 이후 신라 왕실에서는 불교적 왕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³⁶⁾ 신라 왕실의 불교적 왕권 강화 정책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왕실 주도의 진신사리공양과 장엄 및 탑의 건립이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불교행사는 왕실의 불교적 정당성 선전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신라 왕실에서는 꾸준히 중국의 隋, 唐代 황실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진신사리공양의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신라화된 사리장엄방식을 독특하게 발전시켰다. 특히 6세기 후반 중국을 통일한 隋의 文帝가 자신의 불교적 통치 정당성과 聖德을 널리 알리고자 601년부터 3차에 걸쳐 행했던 仁壽舍利莊嚴은 신라를 비롯한 삼국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 仁壽元年(601)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이 각각 사리를 1과씩 받아갔다는 중국측 기록으로 볼 때, 유리병, 금병, 금동함, 석함의 4중 용기로 구성되었던 당시 隋代의 사리장엄방식은 곧바로 삼국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진흥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 왕실에서 사리신앙에 기반한 전륜성왕 사상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하고 발전시켰던 왕은 선덕여왕이다. 선덕여왕은 634년 자신을 위한 분황사를 건립했고,³⁸⁾ 645년에는 중국 당나라에서 귀국한 승려 자장의 조언을 따라 황룡사에 9층목탑을 건립했다.³⁹⁾ 분황사와 황룡사 목탑지에서는 모두 창건기의

왕흥사 사리공양은 正史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2007년 발굴조사과정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위덕왕대의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발굴과 특징에 대해서는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百濟王興寺』,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참조.

- 36) 신라 왕실의 불교와 왕권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 참조. 南東信, 「新羅 中古期 佛教治國策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會議發表論文集』 22, 2001; 판카즈 모한, 앞의 논문(2003; 2004a; 2004b); 金福順,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景仁文化社, 2008. 이 시기 진흥왕의 또다른 중요한 전륜성왕 구현 행위로는 유명한 경주 황룡사 금당에 아육왕상을 모방한 장륙존상의 제작이 있다.
- 37) 隋文帝 연간의 仁壽舍利莊嚴에 대해서는 周奘美, 「隋文帝的 仁壽舍利莊嚴 研究」, 『中國史研究』 22, 2003c, pp. 81~127 참조.
- 38) 분황사 창건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南東信,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推移」, 『新羅文化祭學術會議發表論文集』 20, 1999 참조.



도 4. <皇龍寺 刹柱本記>. 金銅. 신라 872년. 경주 황룡사 목탑지 사리공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유물, 즉 선덕여왕 연간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장엄구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유리병과 은합, 석함으로 구성된 사리장엄방식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특히 外函인 석함은 윗면의 뚜껑이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한 蓋頂形方形函 형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유리병을 內容器로 새롭게 사용하고 있어서, 隋代 仁壽舍利莊嚴方式의 영향이 보인다.⁴⁰⁾

선덕여왕 연간에 창건된 황룡사 목탑지에서는 창건기의 유물로 알려진 목탑 심초석 아래 부분의 唐 白磁舍利壺를 비롯하여 여러 시기의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중에서도 목탑 심초석에 마련된 사리공에서는 872년 경문왕이 이 탑을 중수하면서 탑의 창건과 중수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皇龍寺 刹柱本記>가 발견되어(도 4), 신라 왕실의 사리신앙과 장엄이 9세기까지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려준다.⁴¹⁾

삼국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이러한 신라 왕실의 진신사리신앙과 왕권과의 결합 관계는 지속된다. 특히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을 위해서 아들 신문왕이 발원하여 건립한 7세기 후반의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과 신문왕과 효소왕을 위해서 선덕왕이 재건한 8세기 초반의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는 모두 신라 왕실에서 발원한 뛰어난 사리장엄구들이 발견되어, 신라 왕실의 사리신앙과 장엄 후원이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룡사와 같이 왕실의 권위와 직결된 주요 사찰들의

39) 선덕여왕 연간의 황룡사탑 건립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南東信, 앞의 논문, 2001 참조.

40) 주경미, 「분황사 석탑 출토 불사리장엄구의 재검토」,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간행회편, 도서출판 예경, 2007, pp. 277~297.

41) 황룡사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 및 황룡사 찰주본기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 참조. 黃壽永,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 pp. 269~32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發掘調査報告書 I』, 文化財管理局, 1984; 周昞美, 「皇龍寺 九層木塔의 舍利莊嚴 再考」, 『歷史教育論集』 40, 2008a, pp. 277~318.

탑들은 지속적으로 나라의 후원을 받으며 유지되어, 신라 사리신앙 및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통일 상태가 안정된 이후의 신라 왕실의 사리신앙과 장엄은 통일 전후기의 왕권 강화와 정치적 정당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좀 더 종교적 성격으로 변천하여 先王들의 추모와 死後福德祈願을 위해 행해진다. 855년 문성왕 발원의 창림사탑이나 863년 민애왕을 위해서 발원된 대구 동화사 비로암 3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은 신라 왕실 발원품이기는 하지만, 발원 목적 및 성격, 조형양식 등이 크게 변화되어 통일 전후기와 같이 각 사리장엄별 조형적 특수성과 일회성은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삼국통일 이전 진흥왕과 선덕여왕대에 발전했던 정치적 목적의 진신사리신앙을 바탕으로 한 불교적 진륜성왕 사상의 강조 및 왕실 권위 고양을 위한 대규모의 불교의례 등은 통일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신라 왕실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후백제의 견훤이나 고려 태조, 조선 태조 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계승 및 구현된다.

III.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조형적 변천과 삼국통일

660년 백제의 멸망과 668년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676년 나당전쟁의 종결 등 7세기 후반경에 이루어진 신라의 사회적 변화는 불교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삼국통일과 함께 신라 사회는 안정된 문화를 발달시켰으며, 특히 불교적 조형활동은 매우 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통일 직후인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에 제작된 통일신라 왕실 발원 사리장엄구들은 신라의 사리장엄구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독창적인 양식을 구현해냈는데, 이러한 조형적 독창성의 발휘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삼국통일이었다.

삼국통일을 통해서 신라는 백제 문화의 흡수에 따른 기술적 변화 및 당나라를 통한 새로운 미술 양식의 안정적 전래를 획득할 수 있었다. 통일 직후인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경의 신라 사리장엄구는 고신라의 문화적 전통과 삼국통일을 통한 백제의 미술 양식의 전래, 그리고 새롭게 전래되기 시작한 당나라 문화의 영향이 결합되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롭고 독창적인 양식을 형성했으며,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통일 직후 신라 왕실 발원 사리장엄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통일 이후 신라 사리장엄구에 나타난 가장 큰 조형적 변화 중에서 方錘形函과 寶帳形舍利器 형식과 같은 新形式 등장 및 유행, 그리고 제작기법의 전통과 혁신 문제 등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舍利莊嚴具의 新形式 창안과 유행



도 5. 감은사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 통일신라 682년경.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6. 彩繪石造阿育王塔. 唐 8세기. 중국 陝西省 扶風縣 法門寺塔 地宮 출토. 法門寺博物館 소장.

삼국통일 이후 신라 사리장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첫 번째 조형적 변화는 方錘形函과 寶帳形容器라는 새로운 사리장엄구 형식의 등장이다. 이는 통일신라 왕실에서 발원하여 만든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출토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그 이전의 단순한 병이나 함 형식과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감은사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문무왕을 위해서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682년 창건한 사찰로서, 당시 세워진 쌍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당시의 상태로 각각 발견되었다. 서탑은 1959년 해체조사되어 3층탑신 윗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사리장엄구 일괄이 수습되었으며(도 5),⁴²⁾ 동탑은 1996년에 해체 조사되어 역시 같은 위치의 사리공에서 사리장엄구 일괄이 수습되었다.⁴³⁾ 쌍탑의 사리장엄구는 기본적으로 금동제 外函, 금동제 內函, 수정제 병으로 이루어진 3중 구성이며, 두 세트의 구성은 서로 유사한 양식이다.⁴⁴⁾ 두 세트는 모두 外函으로 방추형함 형

42) 金載元·尹武炳, 『感恩寺址 發掘調査報告書』, 乙酉文化社, 1961.

43)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44) 발굴보고서 이외의 감은사 사리장엄구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 글 참조. 김희경, 앞의 책, 1989; 강우방, 「佛舍利莊嚴論 - 佛經·佛塔·佛像의 相關關係」, 『佛舍利莊嚴』,

식을 사용하고 內函으로 寶帳形舍利器 형식을 사용했다.

감은사지 사리기의 外函으로 사용된 方錐形函 형식은 뚜껑 위쪽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뾰족하게 처리된 방형함 형태로, 중국의 盞頂形方形函 형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방추형함 형식의 사리기는 중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古式의 方形單層塔 형식이 단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梁武帝 연간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탑의 형태를 모방한 탑형사리장엄구 형식이 등장하는 것은 왕실 발원의 진신사리공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 梁代에는 이미 서역식 보탑이라고 전하는 鄮縣 阿育王塔의 형태를 따르는 탑형사리장엄구 형식이 있었다.⁴⁵⁾ 감은사 사리장엄구보다는 시대가 늦지만, 唐代 황실의 공양을 받은 유명한 法門寺塔 地宮에서는 금속과 돌로 만든 방형단층탑 형식의 小塔, 즉 탑형사리장엄구가 세 점이나 발견되었다(도 6).⁴⁶⁾ 法門寺에서 발굴된 탑형사리장엄구 3점은 모두 唐 황실에서 발원한 진신사리 공양을 위한 독특한 사리장엄구로서, 모두 7세기 隋唐代 중국에서 유행한 방형단층탑 형식을 따르고 있다.⁴⁷⁾ 신라 왕실 발원의 감은사지 사리기에 채택된 방추형함 형식은 이러한 수당대의 방형단층탑 형식을 좀 더 단순하게 변화하여 나타난 형식으로서 탑형사리장엄구의 신라적 변용을 보여준다.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의 사리장엄구 중에는 방추형함 형식, 혹은 방형단층탑 형식의 사리장엄구가 종종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금동제방형함(도 9의 중앙),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金製函, 전 남원출토 금동제방형사리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전 남원출토 금동제방형사리함은 방추형의 맨 윗부분에 탑의 상륜부를 연상시키는 산개 형태가 장식되어 있어서(도

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128~223; 강순형, 「신라 사리그릇 틀론」, 『문화재』 27, 1994; ; 김연수, 「한국 사리기에서의 ‘寶帳’ 형태에 대한 고찰」, 『미술자료』 65, 2000, pp. 35~62; 주경미, 「韓國 古代 佛舍利莊嚴에 미친 중국의 영향」, 『美術史學研究』 235, 2002; 신대현, 앞의 책 참조.

45) 鄮縣 阿育王塔의 형태를 따른 소탑, 혹은 탑형사리장엄구는 10세기 吳越國의 錢弘俶에 의해서 변형된 형식이 정착화되어 宋代 江南地域에서 크게 유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周昞美, 앞의 논문, 2009b 참조.

46) 法門寺에서는 석조아육왕탑 이외에도 금동제방형단층탑과 금제방형단층탑이 각각 1점씩 발굴되었는데, 세 점 모두 사리장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陝西省考古研究院 外編, 『法門寺考古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2007, 彩版 127~129; 178; 209~215.

47) 隋代 이후 방형단층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山東省 神通寺의 四門塔과 河南省 安陽 修定寺塔 등이 있다. 隋唐代 방형단층탑 및 탑형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주경미, 「탑형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 2004a, pp. 224~249.



도 7. 전 남원출토 금동제방형사리함. 통일신라 8세기.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7), 이러한 방추형함 형식이 진신사리 공양을 위한 탑형사리장엄구의 형태에서 변화된 형식임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감은사지의 방추형함은 사방 표면에 四天王像을 타출하여 장식하고 있으며, 내부가 완전히 막혀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감은사지보다 늦은 8세기의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제방형함과 전 남원출토 금동제방형사리함은 모두 함의 측면을 투각 기법으로 뚫어서 내부가 들여다 보이도록 고안된 점이 특징이다(도 7, 9). 이러한 내부 개방형의 사리기 구조는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에서 종종 보이는 독특

한 특징으로서, 가장 이른 예는 역시 감은사지의 쌍탑에서 출토된 內函의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도 8).

감은사지의 방추형함 안에 들어 있었던 독특한 형식의 內函은 기본적으로 수미좌 형태의 기단부와 사방의 기둥, 꼭대기의 蠡頂形 天板과 2단의 天蓋 등으로 이루어진 ‘보배로운 장막’, 즉 ‘寶帳’의 형태를 따른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의 사리기는 발견당시부터 통일신라 특유의 양식으로 주목되어 왔는데, 그 기원은 棺을 옮기는 喪輿나 고귀한 인물을 모시는 帳幕, 혹은 사리를 이운할 때 사용하는 가마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사리기는 경전이나 중국 명문에 나오는 명칭을 따라서 ‘寶帳形사리기형식이라고 지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전에는 ‘靈帳形’, ‘殿閣形’, ‘喪輿形’, ‘寶閣形’등으로 불리기도 했다.⁴⁸⁾

감은사지 서탑과 동탑의 寶帳形舍利器를 보면, 장막의 중앙에는 寶珠形, 혹은 蓮花形의 구조물이 놓여져 있고, 그 주위는 天人이나 승려 등이 호위하고 있다. 사리는 이 寶珠形 구조물 안에 놓여진 수정제 병 속에 안치되어 있었다(도 10). 서

48) 이 사리장엄구 형식의 명칭 및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논문, 2002, pp. 43~47 및 上同,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 『新羅文化』 25, 2005, p. 214의 각주 13 참조.



도 8. 金銅製內函, 통일신라 682년경.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탑 출토 內函은 寶帳形舍利器의 위쪽 天蓋 부분이 복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단부 위에 중앙의 寶珠形 구조물과 그 주위에 배치된 네 명의 악기를 연주하는 天人像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도 5의 중앙). 그러나 동탑 출토품은 원래의 형태에 가깝게 天蓋 윗부분까지 복원되었다(도 8). 서탑 사리기의 주위에는 주악천인상이, 동탑 사리기의 주위에는 사천왕과 승려상이 에워싸고 있으며, 동탑 기단부 사방에는 사자가 있어서, 각 사리기에 표현된 도상의 구성은 두 사리기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감은사 사리장엄구의 內函, 즉 寶帳形舍利器는 사방에 기둥만 서 있어서 내부가 개방된 열린 구조물로서, 蠡頂形의 天板 주위에 투각한 역사다리꼴 모양의 장식문양대를 2단으로 배치한

天蓋 형태가 특징적이다. 天蓋의 사방에는 금속을 투각하여 만든 幡과 風鐸을 매달아서 장식해서 매우 화려하고 장엄한 양식을 보여준다. 남북조시대의 실제 帳幕 형태에서 기원한 內函 형식이 사리장엄구로 채택되는 것은 역시 7세기 중반 唐代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⁴⁹⁾ 중국에서의 가장 초기의 寶帳形舍利器는 나무와 직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전하는 예는 없다. 寶帳形舍利器 형식의 실물은 현재 감은사에서 출토된 금속제 사리기가 가장 이르다.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사리장엄구가 금속으로 제작된 예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8세기경에 만들어진 석조품의 예가 있을 뿐이다.⁵⁰⁾

寶帳形舍利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내부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상태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이자 舍利親見儀禮가 행해지는 전각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사리는 多重容器에 봉안하여 탑에 매납하기

49) 주경미, 앞의 논문, 2002 참조.

50) 8세기 唐代 寶帳形舍利器의 예로는 708년명의 法門寺塔 地宮 출토 石造靈帳과 741년명의 慶山寺塔 地宮 출토 釋迦如來舍利寶帳 등이 있다. 주경미, 앞의 책, 2003a, pp. 178~188; 198~206 참조.

때문에, 사리기, 혹은 탑의 바깥쪽에서는 사리의 존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聖物인 사리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舍利親見儀禮의 발달과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사리기의 제작을 발전시켰다. 고대 인도에서도 사리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정으로 사리기를 만든 예들이 일찍부터 확인된다.

동아시아에서는 7세기 이후 사리의 친견의례 및 공양회가 황실의 후원을 통해 대규모로 열리게 되면서, 내부 구조가 개방된 사리장엄구 형식이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7세기 중반 唐에서는 長安 교외의 法門寺에서 佛指骨, 즉 부처의 손가락 뼈 사리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대규모의 공양회를 황실의 후원 아래에서 거행하였다.⁵¹⁾ 중국의 유일한 女帝인 則天武后는 法門寺의 사리공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사리공양회를 거행하고 사찰을 증축했는데, 아마도 이 때부터 舍利奉送과 親見이 가능한 구조의 寶帳形舍利器가 사리장엄구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唐 황실의 새로운 사리장엄구 형식은 唐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승려들을 통해서 신라 왕실로 바로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 왕실에서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조형성을 발휘한 감은사지 사리기의 內函과 같은 독특한 불교 조형예술품을 창안해냈다.

감은사 사리기의 內函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내부 개방형 구조의 사리장엄구 형식은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주요 사리장엄구에서 종종 나타난다. 물론 寶帳形舍利器 자체는 7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극히 드물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현존하는 예는 감은사지 쌍탑 출토품과 칠곡 송림사 전탑 출토품 뿐이다.⁵²⁾ 감은사와 송림사 사리기의 독특한 寶帳形舍利器 형식은 8세기 중엽이 되면 사라진다. 그렇지만 寶帳形舍利器에서 시도된 내부 개방형의 구조라는 개념은 이후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의 조형성에 계승되어, 8세기 중엽 이후에는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각의 방추형함 형식으로 발전한다(도 9).

742년에 창건된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제방형함은 바로 감은사 사리기의 外函과 內函에서 보이는 중요한 조형적 특징 두 가지가 융합하여 발전한 양식으로서 중요하다.⁵³⁾ 이 함은 탑의 형태를 모방한 방추형함 형식에 舍利親見이 가능한 내부

51) 唐代 황실의 法門寺 진신사리공양에 대해서는 위의 책 참조.

52) 송림사 전탑 출토 사리기에 대해서는 金載元, 『松林寺 塔塔』, 『震檀學報』 29-30, 1966, pp. 15~28 및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1991, p. 27 참조.

53) 불국사 삼층석탑은 일반적으로 석가탑이라고 알려진 탑으로, 내부의 사리장엄구는 1966년에 발굴되었다. 탑의 창건 연대는 최근 공개된 고려시대의 묵서지편에 쓰여진 대로 경덕왕 즉위년인 742년으로 본다. 불국사 석가탑 유물 보고서 간행위원회 편, 『불



도 9.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
통일신라 742년 - 고려 11세기 전반. 경주 불국사 소장.

개방형 구조를 접목하여, 함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측면을 투각 장식한 방추형함 형식으로 조형화되었다. 내부에는 다시 한 가운데에 연화 대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유리병, 銀碗, 銀盒 등으로 이루어진 사리기를 겹쳐서 안치해 놓았다. 고려시대의 중수기에 의하면 이 중에서 銀碗과 銀盒은 고려시대에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이라고 하므로, 현존하는 사리장엄구의 구성은 창건기의 상태와는 달라진 양상이다.⁵⁴⁾ 그렇지만 내부의 중앙 부분을 볼 수 있는 방추형함 형식은 불국사 삼층석탑의 창건기인 8세기 전반에 창안된 것으로서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는 전 남원 출토 금동제방형사리함,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출토 금동제방형함 등이 있는데, 각 사리기마다 형태 및 측면 판의 투각문양 등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제작기법의 전통과 혁신

신라의 사리장엄구들은 대부분의 주요 器皿이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장 안쪽 용기는 수정, 혹은 유리로 만들어졌다. 신라 사리장엄구의 조형성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종 공예기법에서 확인되는 전통성과 혁신성이다.

국사 석가탑 유물 2 -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2009, p. 51.

54) 周旻美, 「<墨書紙片>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 편』, (재)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a, p. 100.

신라의 금속공예는 이미 4-5세기경부터 매우 발달된 양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금, 은, 동, 각종 동합금, 철 등으로 만들어진 다종다양한 금속공예품들이 고분에서 다수 출토되었다.⁵⁵⁾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었던 뛰어난 수준의 금속공예품들은 불교의 확산 및 葬送儀禮의 변화와 함께 점차 고분에서 사라진다. 고분 출토 금속공예품이 줄어드는 7세기 이후 신라 문화에 새롭게 등장한 불교의 사리장엄구들은 제작기법 및 양식적 특징이 고분 출토품과 상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분 금속공예품에 보이는 전통 금속공예기법을 응용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7세기 후반 이후의 사리장엄구에서는 전통적인 신라의 금속공예기법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제작기법 및 제작방식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리장엄구의 조형에는 삼국통일 및 당나라 문화로부터의 영향이 비교적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전통 금속공예기법 중에서 사리장엄구의 제작에 사용된 주요 기법으로는 판금 및 단조기법, 투각기법, 蹴造技法, 鏤金細工技法, 琉璃嵌玉技法 등이 있다.⁵⁶⁾ 분황사와 황룡사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출토된 각종 공양구들은 당시 고분 출토품들에서 보이는 장신구 및 器皿과 유사한 형식과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신라의 전통 공예기법이 사리장엄구 및 공양구의 제작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판금과 단조기법은 판을 이용하여 방형의 그릇이나 원형의 합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器物 형성기법으로서, 대부분의 사리장엄구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투각기법과 蹴造技法 등 각종 정과 끝을 이용하는 표면장식기법은 송림사 전탑 출토 寶帳形舍利器의 天蓋 부분이나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제방형함의 측면 등 여러 사리장엄구에서 확인된다.

송림사 전탑 출토 寶帳形舍利器는 판금기법과 투조기법을 중심으로 제작된 금속공예품으로서, 기단부가 낮고 형태가 단순하며 장막의 중앙에는 초록색 유리병과 琉璃鉢을 안치한 연화대좌가 놓여진 古式이다. 天蓋의 형태와 장식도 단순한 투각의 마름모꼴 문양이 중심이며, 사리기로 사용된 琉璃鉢의 형태는 고신라시대

55) 신라 고분 출토품에 보이는 다양하고 발전된 금속공예기법에 대해서는 주경미, 「三國時代 耳飾의 製作技法」, 『古代研究』 5, 1996b; 國立慶州博物館, 『新羅黃金』, 국립경주박물관, 2001;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56) 신라 사리장엄구의 제작에 사용된 주요 금속공예기법에 대해서는 周昺美, 「통일신라시대의 金工技法 研究 - 佛舍利莊嚴具를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4, 2003d. pp. 263~303 참조.



도 11. 금제마개. 신라 682년경. 도 10의 윗부분 세부.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0. 수정병. 신라 682년경.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분에서 출토되는 서역계 유리기들과 상통하고 있어서, 감은사지 출토품보다는 전통적 기법 및 양식이 강조되어 있다.⁵⁷⁾

신라의 전통 금속공예기법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鑲金細工技法이다. 누금세공기법은 고신라시대의 발달된 금속공예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리장엄구의 제작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감은사지 동탑 출토 사리장엄구 중에서 가장 안쪽의 사리기인 수정병의 뚜껑과 바닥의 마개는 보기 드물게 전통적인 누금세공기법으로 장식되었다(도 10, 11). 또한 수정병은 병 모양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제작기법은 청동기시대 이후로 영남 지역에서 널리 제작된 전통적인 수정구슬의 제작기법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수정을 병 모양을 깎고 아래 위 양쪽에서 뾰족한 도구로 중앙을 향해 파들어가서 서로 관통하는 구멍을 뚫은 후, 병 모양의 구슬을 사리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위쪽에 금판으로 만든 마개를 덮은 것이다. 특히 위쪽 마개에는 고분 출토 장신구에서 종종 보이는 결절구갑문과 꽃문양이 누금세공기법으로 장식되어, 전통 양식을 따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감은사 출토 수정병과 금제마개는 신라 왕실에서 전통 문화를 계속 간직하면서 불교적으로 변용된 미술을 꽃피웠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이다. 중국에서는 수정제 사리장엄구가 극히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57) 송림사 전탑 사리장엄구에는 백제 후기 미술양식과의 관계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周旻美, 『彌勒寺址 石塔 舍利莊嚴具의 構成과 意義』, 『百濟研究』 59, 2014, p. 105 참조.

수정제 사리장엄구가 가장 안쪽 사리기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수정은 삼한시대부터 영남지역에서 애용되던 중요한 장신구이자 위세품이었기 때문에, 신라 왕실 발원 사리기의 가장 안쪽 용기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즉 감은사지와 송림사의 사리장엄구에서 보이는 독특한 조형성은 신라의 전통적 금속공예기법 및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과 서역 등을 새로 전래된 불교미술 및 의례 등을 접목하여 창출해낸 신라만의 독특한 불교미술 양식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 고구려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새로운 미술 양식과 제작기법을 폭넓게 꾸준히 받아들여 자기화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 사리장엄구의 조형에 새롭게 나타난 혁신적 제작기법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조와 판금기법의 복합적 사용 및 魚子文技法 등의 새로운 표면장식기법 등이다.

금속을 주조하여 기물을 형성하는 방식은 신라에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사용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7세기 후반의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에서는 그 이전과 달리 주조기법과 판금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각 부분을 별도로 만든 후 조립하여 복잡한 형상의 사리장엄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 각종 제작기법의 복합적 사용 방식은 신라에서는 대체로 삼국 통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⁵⁸⁾

감은사지 사리기의 경우, 外函은 기본적 기형과 외부의 사천왕상은 판금기법 및 타출기법으로 각각 제작하여 조립했다. 內函의 제작기법은 좀 더 복잡하여, 아래쪽의 대좌와 내부 造像板 및 기둥 등은 동합금으로 주조하여 제작하고 표면장식을 했다. 위쪽의 天蓋는 동판을 이용한 판금기법으로 별도 제작한 후, 대좌부분과 조립하여 전체 형태를 완성하였다. 즉 감은사지 사리기는 전체 조형성을 고려하여, 표현해야 하는 각 부분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재질과 제작기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해서 완성한 것이다.⁵⁹⁾ 이렇게 고도로 복잡한 器物의 제작방식은 발달된 주조기법 및 정교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금속공예기법의 발달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되는 것은 백제 왕실의 발원으로 639년에 제작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이다. 2009

58) 물론 신라 고분 출토 馬具 중에는 철과 금, 은, 금동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금속재질 공예품, 혹은 동합금을 이용한 주조기법과 판금을 이용한 판금기법이 병용된 공예품 등이 이미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법이 신라 장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을 불교공예품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삼국통일에 의한 백제 장인, 특히 주조기법에 능한 장인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59) 감은사지 동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재질 및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pp. 154~171.



도 12. 금동화와 금호. 백제 63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년 발견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중에서 사리기로 사용된 金壺와 金銅壺는 같은 형식이지만, 재질과 제작기법은 서로 다르다(도 12).⁶⁰⁾ 金壺는 판금기법으로, 金銅壺는 주조기법으로 제작하여 한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금속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제작기법을 사용하여 조형화하는 방식은 7세기 전반 백제 불교계에서 먼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⁶¹⁾ 물론 불보살상의 주조 및 馬具의 제작과 관련하여 신라에서도 이러한 복합적 금속공예 제작기법이 발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통일 직후 왕실에서 발원된 감은사 사리기에서 나타나는

금속공예 제작기법의 복합적 사용 방식의 선례가 백제 왕실 발원의 미륵사지 사리기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백제의 통합과 함께 백제계의 장인들이 신라 왕실 공방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감은사지 사리기에서 보이는 판금과 주조기법의 병용방식은 8세기 이후 신라 사리장엄구에서 꾸준히 사용된다. 진 남원 출토 금동계사리함도 대좌부분과 사친왕 부분은 주조기법으로 만들고, 방추형함과 연화대좌 등은 판금기법으로 제작하여 복합적인 제작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도 7). 이와 같이 하나의 器物을 만들 때, 주조와 판금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여 전체를 완성하는 방식은 이후 고려시대까지 불교공예품의 제작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통일 이후 신라 사리장엄구 및 금속공예에 새롭게 등장한 중요한 제작기법은 魚子文技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어자문기법은 백제에 처음 들어왔으며, 신라에

60)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발굴과정과 출토품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上同,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3 참조.

61)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周旻美, 앞의 논문, 2014 참조.



도 13. 신장상과 魚子文地. 통일신라 682년경.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사리장엄구 內函의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통일 이후에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⁶²⁾ 신라의 어자문기법은 초기부터 당나라의 어자문기법에 비해 자유롭고 듬성듬성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통일신라 초기의 어자문기법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은 백제 금속공예기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백제 미륵사지의 금동호와 금호는 모두 그릇 표면 전체

에 문양과 어자문을 가득 새겨 놓았다. 특히 어자문으로 문양의 바탕 부분을 메우는 ‘魚子文地’ 방식은 이제까지 唐代 금속공예의 특징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통해서 7세기 전반 백제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음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唐代 금속공예품에 표현된 어자문지는 일렬로 정연하게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륵사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듬성듬성하거나 주문양의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정을 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 중에서 어자문기법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역시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이다. 감은사지 사리기에서는 外函 및 內函의 표면장식에 어자문기법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內函 기반부의 장식이다(도 13). 內函 기반부 안쪽에는 고부조의 신장상을 주조하여 만든 금속판이 있는데, 판의 바탕면은 어자문으로 뺄뺄하게 메워져 있다. 이때 어자문 정을 쳐나가는 방향은 신장상의 테두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가며 진행되는데, 이것은 唐代 금속공예품에 보이는 어자문지 방식과는 다른 통일신라적 방식이다. 백제 미륵사지 금동호

62) 李蘭暎, 「魚子文 技法」, 『震檀學報』 71-72, 1991, pp. 187~209. 최근에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출토 4세기경의 진식대금구에서 어자문기법이 사용된 예가 확인되어, 그 전래과정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4. 사천왕상의 세부. 통일신라 682년경.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사리장엄구 外函의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표면에서 보이는 어자문지 방식은 듬성듬성하기는 하지만, 역시 당초문의 테두리를 따라서 어자문 정을 쳐나가고 있어서, 통일신라시대 어자문지의 선행적 형태를 보여준다. 물론 감은사지 사리기 內函의 어자문은 백제 미륵사지 사리기보다 정이 크기가 작고 조밀하게 찍혀 있어서, 좀 더 발달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주문양의 외곽선을 따라서 어자문 정을 쳐나가서 바탕을 메우는 방식은 백제와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일 이후 신라 사리장엄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打出技法은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⁶³⁾ 역시 가장 발달된 타출기법의 예는 왕실 발원의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外函의 사방에 장엄된 四天王像是 銅板을 타출하여 만든 것으로(도 14), 상당히 고부조의 타출 솜씨를 보여준다. 이 사천왕상은 별도의 금속판으로 타출하여 형성한 후, 외함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금속판 뒤쪽에서 정으로 쳐서 입체감을 표현한 후, 금속판의 앞쪽에서 어자문 정이나 蹴造用 정 등으로 다시 쳐서 얼굴 및 갑옷의 세부 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갑옷 장식에 사용된 어자문 정이 크기는 매우 작고 섬세하여, 당시 금속공예기법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감은사지 외함 이외의 다른 사리장엄구에서는 고부조의 입체감이 강조된 타출기법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감은사지 사천왕상에 보이는 타출기법은 통일신라 초기에 특별히 발달했던 드문 예로서, 신라의 전통 금속공예기법에서 발전한 것인

63) 타출기법은 금속판을 안팎에서 정이나 망치로 쳐서 무늬나 부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문양 하나를 하나씩 정으로 타출하여 고부조의 세밀한 문양을 표현해 내는 경우도 있고, 쇠로 만든 스탬프와 같은 것으로 찍어 눌러서 반복적인 입체 문양을 찍어내는 경우도 있는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다. 타출기법의 용어 및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주경미, 「三國時代의 打出技法」, 『科技考古研究』 3, 1998, pp. 127~132 참조.

지, 혹은 唐에서 전래된 새로운 기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에 표현된 일반적인 타출기법은 대부분 線彫技法과 함께 사용되어 얇게 도드라진 정도로만 표현되므로, 입체감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다.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제방형사리함에는 사방 표면에 각각 불삼존상을 표현했는데, 얇게 도드라진 정도의 타출기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은 거의 없다.⁶⁴⁾ 얇게 도드라진 저부조 타출기법의 또 다른 예로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은제도금 금강경판이 있는데,⁶⁵⁾ 이 금강경판의 글자는 하나하나가 얇은 양각의 부조로 표현되어 있어서 광의의 타출기법으로 표현된 것이다.⁶⁶⁾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들은 편년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⁶⁷⁾ 이 금강경판은 재질이나 타출기법 방식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까지 삼국통일 이후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변화는 唐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최근 백제 왕실에서 발원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가 발견되면서, 백제 후기 불교문화의 조형양식적 특징들과 통일신라와의 관계가 새롭게 주목되기 시작했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

6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1991, p. 51의 도판 참조.

65) 1965년 발굴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사리장엄구 중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은 금속제 금강경판은 금제, 혹은 금동제로 알려져 있었다. 위의 책, pp. 41~42의 도판 참조. 최근 보존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순은판에 도금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순은을 사용한 것은 타출기법이 용이하면서도 금에 비해 가볍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유혜선, 「비과피 성분 분석을 통한 은제금도금 유물 연구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발견 <금강경판(金剛經板)>을 중심으로, 『東垣學術論文集』 11, 2010, pp. 66~85.

66) 이 금강경판의 글자는 각필로 새겨서 타출한 것이라는 설도 있으며, 양각의 판에 대고 두드려서 표현한 압출기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 정확한 기법의 고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각필이나 압출기법은 모두 도드라진 양각의 형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광의의 타출기법에 속하는 기법으로서, 압출기법은 입체감있는 판을 여러 점을 반복하여 제작할 때에 유용한 방법이며, 각필은 뒤쪽에서 눌러서 글씨를 새겨나가는 방법으로서 글씨의 표현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 금강경판의 경우에는 글자 테두리의 윤곽선이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금속판의 양쪽에서 정질을 했거나 양각의 금속판 위에 눌러 찍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7) 왕궁리 석탑출토 사리기의 편년은 백제설, 통일신라설, 후백제설 등 다양한데, 필자는 왕궁리 사리기의 형식과 제작기법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궁리 사리기 편년 관련 주요 연구로는 다음 참조. 주경미, 앞의 논문, 2003d. p. 295; 한정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구 연구」, 『신라사학보』 16, 2009; 조용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발견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29, 2009; 진정환, 「익산에 꽃피운 백제의 불교미술」, 『益山 - 전북의 역사문화전 12』, 국립전주박물관, 2013.

보이는 여러 가지 조형적 특징들은 당시 백제 왕실 조형문화의 중심축을 형성했던 것으로, 삼국통일 이후에는 신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조 및 관금기법의 복합적 사용 및 어자문기법의 자유로운 배치방식 등 기존의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특징이라고 알려졌던 조형적 특징들은 이미 백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서 선례가 확인되어, 서로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성격이 조형예술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천하는 것은 삼국통일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혁과 창안의 결과물이다. 특히 신라 왕실은 자신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백제, 고구려, 唐의 새로운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여 융합함으로써, 통일신라 특유의 독특한 조형 양식을 구축해냈다. 통일 직후 신라 왕실 발원 사리장엄구들은 그러한 문화 융합적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며, 통일 왕권의 우수성을 문화적으로 조형화했다. 감은사지 사리장엄구는 바로 그러한 통일신라 왕실의 불교 및 정치 문화의 조형적 표상이다.

IV. 맺음말

신라는 불교 공인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사리신앙과 장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은 동시대 중국 및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신라 왕실의 권위와 주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 및 사회 문화의 변동 상황을 밀접하게 반영하면서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는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라 왕실과 사리신앙의 정치적 관계를 고찰하고, 통일이후 나타난 사리장엄방식의 조형적 변화를 형식 및 제작기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조형적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적 측면보다는 주요 후원자였던 왕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신라의 사리장엄방식은 초전시기인 진흥왕 연간부터 왕실의 전문성왕 사상 구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신라 왕실에서는 삼국통일 직후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사리신앙과 장엄을 후원하여 발전시켰으며, 동시대 중국 황실의 동향에도 꾸준히 주목하였다.

사리신앙의 정치적 목적이 강조되면서 형성된 신라 사리장엄방식이 조형예술적 성격과 종교적 성격이 강조된 양상으로 변천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삼국통일 이후이다. 삼국통일은 신라 왕실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사리장엄방식의 변화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신라 왕실 발원 사리장엄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엄구 형식과 제작기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백제의 통합 및 동시대 당나라 황실의 불교문화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신라는 언제나 신라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제나 당과는 또 다른 신라만의 독자적인 사리장엄구 양식이 발달했다. 7세기 후반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에서 새로 등장한 방추형함이나 寶帳形舍利器 등의 독특한 형식이나 내부 개방형 구조의 사리장엄방식 등은 통일신라 특유의 조형양식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통일신라 이후의 사리장엄방식은 본고에서 고찰하지 못한 또 다른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 隋唐代 불교문화의 변동은 신라 사리장엄구에 표현된 각종 불교적 圖像 구현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唐으로부터 여러 가지 新譯經典 및 密敎, 禪宗 등 새로운 불교 종파가 전래되면서, 왕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신라 사리신앙과 장엄방식은 다양한 계층의 후원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다양한 사리장엄방식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법사리신앙의 전래이다. 원래 법사리신앙은 부처의 말씀, 즉 경전을 숭앙하여 탑에 매납하는 의례와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서, 통일신라시대의 법사리신앙과 장엄방식의 발달에서는 704년 번역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이 경전은 신라 왕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도입되면서, 신라 특유의 법사리장엄방식을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⁶⁸⁾

한편 禪宗의 전래는 부처 중심의 사리신앙에서 벗어나 승려 존숭과 僧舍利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사리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통일신라 후기에 등장하는 僧塔의 건립과 僧舍利의 매납은 선종의 발달과 관련된 사리장엄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이러한 新譯經典 및 새로운 불교 종파의 영향이 신라 사리장엄방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거의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논문을 통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찰할 과제로 남기며 미진한 글을 맺는다.

[논문투고일 : 1월 21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21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22일]

68)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한 신라의 법사리장엄방식과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周旻美,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佛敎美術史學』 2, 2004, pp. 165~196.

[참고문헌]

1. 사료

- 『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梁書』, 『陳書』, 『集神州三寶感通錄』
『海東高僧傳』

2. 단행본 및 저서

- 國立慶州博物館, 『新羅黃金』, 국립경주박물관, 2001.
- _____, 『慶州工業高等學校內 遺構 收拾調査』, 국립경주박물관, 2011.
- 가와카쓰 요시오(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 - 위진남북조』, 혜안,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_____,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_____,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3.
-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百濟王興寺』,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 金福順,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景仁文化社, 2008.
- 金載元 · 尹武炳, 『感恩寺址 發掘調査報告書』, 乙酉文化社, 1961.
- 金禧庚, 『사리구』, 대원사, 1989.
- 望月信亨, 『佛敎大辭典』 全10卷,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3.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發掘調査報告書 I』, 文化財管理局, 1984.
- 불국사 석가탑 유물 보고서 간행위원회 편,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2009.
- 陝西省考古研究院 外 編, 『法門寺考古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2007.
-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 李蘭暎,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上·下, 新文館, 1918.
-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 周昞美,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a.
- 諏訪義純, 『中國南朝佛教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1997.
- Strong, John S. *The Legend of King Aśok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Relics of the Buddh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3. 논문류

- 강순형, 「신라 사리그릇 틀론」, 『문화재』 27, 1994.
- 김연수, 「한국 사리기에서의 ‘寶帳’ 형태에 대한 고찰」, 『미술자료』 65, 2000.
- 金載元, 「松林寺 塔塔」, 『震檀學報』 29-30, 1966.
- 金禧庚, 「韓國塔婆의 舍利裝置小考」, 『考古美術』 106-107, 1970.
- 南東信, 「元曉와 芬皇寺 關係의 史的 推移」, 『新羅文化祭學術會議發表論文集』 20, 1999.
- _____, 「新羅 中古期 佛教治國策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會議發表論文集』 22, 2001.
- 蘇鉉淑, 「北響堂山石窟 北洞의 轉輪聖王 상징」, 『미술사학연구』 255, 2007.
- _____, 「梁 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 2, 2009.
- 유혜신, 「비파괴 성분 분석을 통한 은제금도금 유물 연구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발견 <금강경판(金剛經板)>을 중심으로」, 『東垣學術論文集』 11, 2010.
- 李蘭暎, 「魚子文 技法」, 『震檀學報』 71-72, 1991.
- 張美蘭, 「北朝廢佛에 관한 小考」, 『韓國佛敎學』 33, 2003.
- 조용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발견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 『百濟研究』 29, 2009.
- 周昞美, 「菩薩의 瓔珞莊嚴과 造像上의 表現」, 『東洋古典研究』 6, 1996a.
- _____, 「三國時代 耳飾의 製作技法」, 『古代研究』 5, 1996b.
- _____, 「三國時代의 打出技法」, 『科技考古研究』 3, 1998.
- _____, 「韓國 古代 佛舍利莊嚴에 미친 중국의 영향」, 『美術史學研究』 235, 2002.
- _____, 「中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 - 易姓革命의 선전물로서의 眞身舍利供養」, 『東洋學』 33, 2003b.
- _____, 「隋文帝의 仁壽舍利莊嚴 研究」, 『中國史研究』 22, 2003c.
- _____, 「통일신라시대의 金工技法 研究 - 佛舍利莊嚴具를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4, 2003d.

- _____, 「탑형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 2004a.
- _____,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佛教美術史學』 2, 2004b.
- _____,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 『新羅文化』 25, 2005.
- _____, 「분황사 석탑 출토 불사리장엄구의 재검토」,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간행회 편, 도서출판 예경, 2007.
- _____, 「皇龍寺 九層木塔의 舍利莊嚴 再考」, 『歷史教育論集』 40, 2008a.
- _____, 「스리랑카의 佛齒精舍와 동아시아의 求法僧」, 『역사와 경계』 69, 2008b.
- _____,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 7, 2008c.
- _____, 「<墨書紙片>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편』, (재)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a.
- _____,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研究」, 『中國史研究』 60, 2009b.
- _____, 「고대 국왕의 진신사리 공양과 정치적 함의」, 『인문사회과학연구』 10-2, 2009c.
- _____,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아」, 『인문논총』 67, 2012.
- _____, 「彌勒寺址 石塔 舍利莊嚴具의 構成과 意義」, 『百濟研究』 59, 2014.
- 竹田龍兒, 「侯景の亂についての一考察」, 『史學』 29-3, 1956.
- 진정환, 「익산에 꽃피운 백제의 불교미술」, 『益山 - 전북의 역사문화전 22』, 국립전주박물관, 2013.
- 塚本善隆, 「陳の革命と佛牙」, 『東方學報』 19, 1950.
- 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아소카 상징의 수용과 의의」, 『한국사상사학』 23, 2003.
- _____, 「신라 중고기(AD. 527-654년)의舍利 신앙과 왕권의 정당화」, 『2004 금강대 학교 국제불교학술회의』, 금강대학교, 2004a.
- _____,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 간의 관계」, 『불교학연구』 9, 2004b.
- 한정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구 연구」, 『신라사학보』 16, 2009.
- 黃壽永,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
- Mohan, Pankaj. "Relic Worship and the Legitimization of Monarchical Power in Seventh Century Silla." *Korea Observer* 36-1, 2005.
- Pearce, Scott. "Who, and What, was Hou Jing?" *Early Medieval China* 6, 2000.